



## 내수·수출 탄력 완성차, 공장 가동률 100% 이상 풀액셀

현대차, 울산공장 가동률 113% 튀르키예 115%, 체코 103% 가동기아, 국내 공장 가동률 107.3% 美 조지아주 공장도 102% 달해 한국지엠, 창원 가동률 확보 만전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수·수출 증가로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적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에 시달리며 생산 및 판매 감소를 겪었던 완성차 업체가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확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울산공장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생산 거점에서의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올해 1분기 원래 생산능력(42만7091대)보다 더 많

은 48만2326대를 생산해 공장 가동률 112.9%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인 튀르키예 공장은 1분기 생산 대수가 6만2600대로 가동률은 114.9%에 육박했다. 현대차 체코 공장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 공장 가동률도 각각 103.4%, 101.3%에 달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해외 공장 가동률을 80~90%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아도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아 국내 공장 가동률은 107.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5%p 상승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생산 능력(9만1000대)을 넘는 생산량(9만2730대)으로 101.9% 가동률을 기록했다. 기아 슬로바키아공장과 인도 공장 가동률은 각각 99.3%, 97.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 악재로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잔업과 특근 등을 통한 생산 물량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서 트레일블레이저와 앙코르 GX를 생산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는 트랙크로스오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부평공장의 주력



손 잡은 韓-캐나다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 확대 회담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올해 1분기 5만9198대 수출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뷰익 앙코르 GX 포함)는 3월 한 달간 총 2만 5491대가 해외 시장에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101.9%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트랙크로스오버의 생산에 돌입한 창원 공장은 올 상반기 100%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창원공장은 지난해 10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생산 설비 공사를 진행해 올해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

갔다. 현재 창원공장은 가동 초기 생산 품질을 높이고 공정별 밸런스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초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된 부평2공장 인력 600여명도 숙련공이지만 차종이 바뀌면서 라인 속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최대 60대인데 가동 초기인 만큼 현재 40대 선으로, 월 생산대수는 1만6000여대 수준으로 최대 생산량인 2만5000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창원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가동률 100%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 공장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주말 특근과 특별연장근무를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 코스피 상장사 ‘보릿고개’... 1분기 순익·영업익 반토막

622개 상장사 순익 18.8조, 58% ↓ 코스닥 상장사도 절반 이상 적자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수준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들 역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모두 악화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수출·내수 동시 위축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순이익 반토막... 금융업은 개선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622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18조842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68%(25조6779억 원) 줄어 들었다. 연결 매출액은 697조

<12월 결산법인 2023년 1분기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1~3월	2023년 1~3월	증감률	2022년 1~3월	2023년 1~3월	증감률
매출액	3,724,794	3,660,040	△1.74	6,598,119	6,973,744	5.69
영업이익	279,316	61,513	△77.98	532,592	251,657	△52.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9,685	206,366	△47.04	578,368	260,682	△54.93
순이익	297,420	192,551	△35.26	445,203	188,424	△57.68

3744억 원으로 5.6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조1657억 원으로 52.75% 줄어 들었다. 결과적으로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연결 매출액 비중이 9.14% 선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의 1

분기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8.87%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34%, 47.98%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63조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124.56%), 기계(73.64%) 등 5개 업종에서 영업이익

이 증가했다. 반면, 운수장비(-60.37%), 철강금속(-55.89%) 등 12개 업종에서 영업이익 감소를 나타냈다. 금융업은 연결기준 금융업 42사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57%, 10.94%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코스닥도 절반 적자

연결 기준 코스닥 상장사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매출액은 45조2050억 원(2.7%)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조9746억 원(45.0%), 2조7265억 원(20.8%)으로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 1402개사 중 41.9%(58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에서 제조업이 10.0% 증가하고, IT가 10.1% 감소하는

등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약세가 드러났다. 운송장비·부품(자동차 등)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149.8% 증가하면서 제조업 중 우수한 실적을 실현했다. 반면, 반도체, IT부품 제조 중심의 IT 하드웨어 업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6.0%, 76.1% 감소하면서 IT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실적 부진... 하반기 만회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실적이 2분기에 더 나빠져 상장사 전체 실적에 영향줄 것”이라며 “자동차 기업 실적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강철원, 인허가 비리 연루...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철회해야”  
 ▲ 공군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 참가 위해 이륙 /사진 뉴시스

▲ ‘법 위에 법’?... 공무원 노조 등 37% ‘불법’ 단체협약  
 ▲ 국민의힘 경남도당·경남도, 서울서 예 산정책협의회 개최



▲ 홍준표 “민주당은 부패... 국민의힘은 무능·무기력”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 /사진 뉴시스

# ‘半 소부장 강국’ 日에 R&D 거점... 韓 기술과 시너지 기대

〈반도체〉

## 삼성전자, 日에 3000억 투자

기시다 총리, 반도체社 경영진 초청  
반도체 투자·육성·제휴 등 논의  
TSMC·인텔도 R&D센터 등 투자  
세계적 기업 생태계 활용 장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본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투자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 우려와는 달리 세계 수준 현지 소부장 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다가, 부족한 인력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요코하마에 새로운 R&D 거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약 3000억원을 투자하고 1000억원 수준 현지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일본 각지에 있던 R&D 거점을 요코하마에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DSRJ)으로 통

합한 바 있다. 올 초에는 후공정 검사라인을 새로 설치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을 초청하고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일본 소부장 업계와 제휴를 유도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험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지 업체들과 첨단 반도체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후공정 관련 설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이 반도체 팹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이 새 팹을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강국으로 통한다. 고순도 소재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섬코와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등이 자리하고 있다. 캐논과 니콘도 반도체 식각 장비인 NIL과 DUV 등으로 경쟁력이 높다. FCBGA 등 반도체 기반 세계 1위인 이비덴과 2위인 신코도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 거점을 강화하면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협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전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TSMC가 R&D 센터 뿐 아니라 팹까지 구축하는 상황, 인텔도 R&D 센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거점을 마련하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만든 생태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력 부족 문제 해소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인력 확보 작전 속에서 이미 검증된 일본 인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코하마는 TSMC 재팬 디자인센터를 비롯한 후공정 거점과 디자인 하우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쿄와도 40km 정도로 가깝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양산 기술이 있는 팹을 짓는 것도 아니고, 패키징이나 소부장 분야에서는 오히려 현지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 투자 규모를 감안해도 주요 생산 거점보다는 연구 개발 기지에 무게가 실린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2+2 장관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외교·산업부〉

## 韓-캐나다 정상회담 수교 60주년 트뤼도 총리 방한 향후 60년 미래협력 비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

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 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 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턴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담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all ways INCHEON

인천광역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 소득 줄고 대출 질적 악화... '채무 불이행·파산 신청' 속출

##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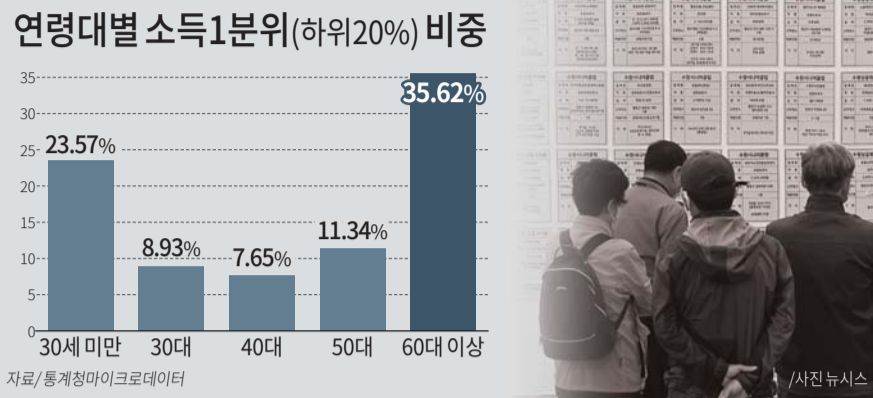
<下> 6070 세대

10명 중 3.5명 소득 하위 20% 분포  
대출잔액 비중 30~50대보다 높아  
"소비여력 감소로 빈곤층 전락 위기"

#. 60세 김모씨는 최근 건물 청소미화원으로 재취업했다. 3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모아 놓은 재산과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려했지만, 막내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는 막내아들은 취업이 어려워져 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모씨는 "은퇴할 때는 재취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아들취업이 늦어지면서 학비에, 주택담보대출, 또 생활비까지 더해져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명 중 3.5명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자녀 교육과 노후준비는 늦어지면서 빈곤한 6070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소득하위 20% 최다 분포  
17일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35.62%에 달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소득 하위 20%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문제는 6070세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대출상환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은 집에 묶여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차주 및 대출 잔액을 봤더니, DSR이 40%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차주 비중 가운데 60~70대 이상의 경우는 4.3~12.7%였다. 30~50대 (5.2~12.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

비중은 60대(DSR 40% 이상)가 41.8%, 70대 이상이 44%로, 30~50대(20~30%)보다 높았다. DSR가 높은 차주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잔액이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가령 DSR가 40%라는 건 연소득 5000만원일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 ◆ 파산자수 증가

여기에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까지 사라지면서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금융권에 몰렸다. 지난 2021년 말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은 22조3662억원으로 2019년 말(18조3862억원)과 비교해 21.7% 증가했다. 반면 2금융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2조6325억원에서 28조2413억원 증가해 총 24.8% 늘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대출이 거절되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갚을 능력에 비해 빚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3282명에서 2019년 11만8205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87만3938명에서 83만7767명

로 줄었다.

6070세대의 파산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3680명, 70세 이상은 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소득이 없고, 경기악화로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자리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60대 이상 차주의 소비 여력 감소는 잠재적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기준금리 밑도는 코픽스 주담대-전세대출 차주 희비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 3%대 진입  
전세대출 상단 여전히 5%대 상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어 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5%대를 상회하면서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여전하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7~6.79%를 나타내며 금리하단이 3%대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3.92%)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금리 변동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월(3.56%)보다 0.12%포인트(P) 낮은 3.44%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것은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를 4.09~5.49%에서 3.97~5.37%로 내렸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를 4.45~5.

65%에서 4.33~5.53%로 인하했다.

반면, 전세대출의 금리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4월 코픽스가 1.72%였던 당시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는 1.93~3.33%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며 코픽스 역시 3.56%로 동반 상승한 올해 4월에는 같은 상품의 금리가 3.77~5.17%로 올라갔다.

하지만 최근 코픽스가 하락해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 반면,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5%대를 웃돌고 있다.

특히 은행별 가산금리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1년 만에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70만원 가량 늘어 나는 셈이다.

문제는 전세대출 차주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 청년 등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실리온밸리 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은행채 금리 하락, 시중은행들의 상생 금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건축 이전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상품을 설계할 때 금리인상분이 차주에게 100%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나, 우리, 모두가 바라던 카드를 만날 시간

KB국민 WE:SH 카드  
My WE:SH / Our WE:SH / WE:SH ALL

time to WE:SH

■ KB국민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AMEX))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 /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 삼겹살 2만원 시대... 줄인상 외식물가에 가계 지갑 닫는다

GDP성장률 곤두박질 가능성  
짜장면 평균 가격 7000원  
삼계탕, 전년비 올 4월 12% 인상  
육류·채소 등 '밥상 물가' ↑



치킨 등 외식물가 상승에 냉동치킨 판매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냉동치킨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치솟는 '외식 물가' 및 '밥상 물가'가 이른바 만성화하는 무역적자에 더해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보이던 소비심리를 되레 위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부진한 수출에 더해 내수마저 계속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다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식재료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에 따라 외식 물가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가격이 7000원,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선을 넘보

고 있다. 짜장면 1인분은 불과 한 달 새 115원 오른 6915원으로 집계됐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삼겹살 200g(1인분) 가격이 1만 9236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1.4% 상승한 수치다.

닭고기 값도 부쩍 올라 지난해 4월 1만4500원이던 삼계탕이 올 4월엔 1만 6346원으로 12% 이상 올랐다.오는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삼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드치킨 또한 마찬가지로 밥상물가에 큰 위협 요인이다.

김치찌개 백반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고, 김밥(7.4%), 비빔밥(6.9%), 칼국수(6.5%) 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물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지

표에 따르면 밥상에 오르는 육류, 생선, 채소 값 모두 상승세의 연속이다.

'외식 물가와 밥상 물가' 둘 다 단번에 잡기 위한 특단의 처방으로 한국은행발 '금리 인상' 카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파적 기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직후의 일이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상 카드는 요원한 일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줄곧 이어온 금리인상 기조를 이젠 종료할 시점을 찾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줄곧 '금리인하론'을 꺼내들었던 기획재정부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뛰는데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순 없는

노릇이다.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무역수지 적자가 쌓일뿐더러 물가 고공행진으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6% 달성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감내해야할 부분으로 본다"며 정책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공공요금 인상도 힘든데 설탕·밀가루까지 올라

올 하반기 엘니뇨 발생 우려에  
사탕수수·밀 수확량 급감 할 수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설탕·축산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또 한 번 식탁 물가 연쇄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통계에 따르면 런던국제금융거래소(LIFFE)에서 거래되는 설탕값은 12일(현지시간) 기준 t당 716.90 달러로 연초 대비 약 30% 상승했다.

올 하반기 강한 엘니뇨 탓에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 수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폭등했던 밀가루 가격도 위태롭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6-9월 강우량이 급감할 경우 수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문순 기간 강우량 부족으로 곡물 생산이 줄어들자 밀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어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밀 공급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국제 설탕·밀 가격 폭등의 여파는 국내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가 주원료인 과자나 빵 등 주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업계의

경우 가격 인상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는 최근 식품업체들에 가격 추가 인상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달쯤 10% 안팎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소매 제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공식품의 재료 비용이 올라가는 셈이기에 추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동결 요청으로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하반기 미리 구매해둔 비축분이 한계에 달하고 강력한 엘니뇨가 몰려온다면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에너지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식단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전기요금이 kWh당 8.0원, 도시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오르면서 올 여름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는 0.1%p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 요금 가중치를 이번 인상폭인 5.3%에 곱해 연간 효과로 계산한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암의 조기 발견은  
결국 운에 맡기는 거 아닌가?

같은 암이면 누구나  
같은 치료를 받는 거 아닌가?

암보험은 보험금만  
받으면 끝 아닌가?

##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한화생명 시그니처암보험(무)

더욱 새로워진 시그니처 암보험 3.0(무)을 만나보세요

상담문의 080.365.6363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암보장 기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1905호 (2023-02-21~2024-02-20)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3-04-013



## 서울시,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 검토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번에 올리는 방안 대신 150원씩 두번에 나눠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특별위원회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초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등 부담 과중 때문에 미뤄졌다. 분리해서 하반기에 먼저 15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150원을 올리고 추후 150원을 마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50원을 나눠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후 2:05

[ Web발신 ]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3월 20일 월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오후 2:06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2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3.03.20일자 기준)

#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착수... 신속 제명 vs 절차 중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자문위 절차 생략 제명안 본회의 상정 제안

**민주당** '절차적 정당성' 지적 "급하다고 건넬 수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 다만 여야가 여론을 고려, 빠른 절차에 공감한 만큼 김 의원의 징계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 ▲소위원회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에 이양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는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간사 및 소위 구성안을 처리한 뒤 김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원회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기한에서 의견 제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 의견 청취 생략 후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도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가

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 간 논의 후 결정해달라고 했다.

여야 협의로 김 의원 징계 심의가 시작되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경고·사과·출석 정지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원직 신분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적의원 3분

의 2 찬성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 의원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를 고려한 듯,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자체조사 종료 후 윤리위 제소'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국민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개인 투자이므로 문제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자진 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7일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을 위한 조직운영을 본격화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정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 尹 대통령 "이주민 제도 개선 이뤄져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 회의 참석 전문가 의견 청취... 정책토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민 정책과 관련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위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이 개별적인 현안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것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평소 의중을 반영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보육-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도 논의됐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 與野 광주 집결... 호남민심 공략 총력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주요 정당, 의원 전원참석 방침 '5·18정신' 헌법 수록 메시지 주목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5·18 평화' 논란을 겪은 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의힘과, 당내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년 연속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특별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곤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 43명도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오

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광주를 찾는 것은 정부의 인선과 당 지도부의 설화로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덧발' 호남을 찾은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오전 단체로 당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 후 기자들에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공통분모를 찾아 단일대오 구축에 실마리를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발길을 광주로 향한다. 윤호수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현대백·카카오·태영 등 7곳 신규편입... 동국제강은 제외

## 금감원, 주채무계열 38개사 선정

주채권은행 재무구조 관리 대상 평가결과 미흡한 신용위험 관리 전체 신용공여액 322.6조, 16%↑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상위

빛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할 기업집단 38곳이 선정됐다. 이랜드, 카카오, 태영 등 7개 계열이 올해 새로 편입됐으며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총차입금이 2조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전년 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0.1% 이상이면서, 전년말 은행권

## <주채무계열별 주채권은행 현황>

주채권은행	담당 계열(총차입금 기준 순위)	전년 대비 증감
우리(11개)	삼성(4), 엘지(5), 한화(6), 포스코(8), 씨제이(12), DL(14), 중흥건설(17), 두산(18), 코오롱(25), 효성(26), 엘엑스(36)	+1개 (엘엑스)
산업(10개)	한진(11), 금호아시아나(15), 하림(20), SM(22), 이랜드(23), 태영(27), HL(31), 한온시스템(33), 대우조선해양(34), 동원(37)	+2개(신규:이랜드,태영, 한온시스템, 제외: 동국제강)
하나(8개)	현대자동차(1), 에스케이(2), 지에스(7), HD현대(9), 현대백화점(30), 넷마블(32), DN(35), 세아(38)	+2개 (현대백화점, DN)
신한(6개)	롯데(3), 엘에스(16), 에스-오일(21), 카카오(24), 오씨아이(28), 케이씨씨(29)	+1개 (카카오)
국민(2개)	신세계(10), 케이티(13)	-
SC(17개)	에이치디씨(19)	-

/금감원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가 넘는 기업그룹이 대상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등 신용위험 관리 대상이 된다. 다만, 주채무계열 선정은 절대적인 신용공여액이 많다는 의미로 당장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

니다. 전체 주채무계열의 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DN, 엘엑스 계열 등 7개사가 신규 편입됐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됐다. 엘엑스는 LG계열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형성된 엘엑스는 인수합병(M&A) 등 투자확대를 위한 차입 증가 등으로 주채무계열에 새롭게 편입됐다. 동국제강 계열의 경우 영업

흑자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총차입금 선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총차입금 기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삼성, LG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삼성과 롯데의 순위가 변동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기업신용공여잔액은 177조5500억원으로 2021년말(161조2500억원) 대비 163조 원 증가했다.

전체 주채무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22조6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277조1000억원) 대비 45조5000억원(16.4%) 늘었으며, 총차입금은 609조7000억원으로 전년 주채무계열(32개, 546조3000억원) 대비 63조4000억원(11.6%) 증가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8개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우리·KDB산업·하나·신한·KB국민·SC은행 등 6개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최근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추세,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부채비율 구별별 기준점수 미만인 기업 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곳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미래에셋생명, 해외 소외계층에 천연비누 전달

## Advertorial Corner

핸즈온 방식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 임직원 100명 참여, 비누 300개 제작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이 해외 소외계층 가정의 건강과 위생을 지원한다. 미래에셋생명은 필리핀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만든 천연비누 300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임직원 총 100명이 참여했다.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고 포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위생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천연비누는 해외 소외계층 가정의 건강을 책임질

생활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봉사는 기부 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핸즈온(Hands-ON)' 방식으로 진행했다. 핸드온이란 '두 손에 정성을 담는다'는 의미다.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이다. 나눔문화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핸

즈온'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방역 마스크, 북 커버,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항균키트 등 필수품을 만들어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해외의 소외받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의 온기를 느끼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미래에셋 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에 따라 고객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꾸준히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신협, 농어촌 특산품 판매·홍보 지원

상생상회서 '어부바장터' 오픈 18일부터 이틀간, 32종류 선택

신협중앙회가 농어촌 신협의 지역 특산품 판매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상생상회'에서 '신협 어부바장터'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농어촌 신협 및 조합원의 특산품 홍보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관령신협 황태 ▲청송신협 사과 ▲한산신협 소곡주 ▲완도제일신협 미역 ▲금산비단·금산중앙신협 인삼제품 ▲봉평신협 메밀제품 등 총 32종류의 농수산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3만원 이상 구매할 소비자에게는 고 무장갑 및 한지 물티슈를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추가로 어부바 장바구니 카드를 증정한다. 이어 개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면 어부바 캐릭터 인형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어부바 랜선장터'를 진행한다. 방송인 이희경씨가 일일 쇼호스트가 되어



신협의 특산품을 소개한다. 시청자 중 500명을 추첨해 대관령신협 황태채, 완도제일신협 자른 미역, 어부바 인형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신협이 자랑하는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신협 어부바장터'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여 농어촌 신협과 조합원들의 우수한 농·수·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롯데, 광역버스 예약서비스... KB국민, 혁신 스타트업 발굴

## 카드 News

롯데카드가 광역버스 이용이 잦은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 원하는 노선, 정류장, 좌석 등 선택 롯데카드는 디지털카업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에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 교통카드 등록 후 ▲ 광역버스 노선 ▲ 탑승 정류장 ▲ 출발 일시와 좌석 등을 선택해 예치금을 결제하면 된다. 탑승 카드 등록과 예치금 충전은 롯데카드는 물론 타사 신용·체크카드로도 가능하다. 매일 탑승하는 노선은 '마이(MY) 버스'로 등록해 '빠른예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른예약은 매년 노선, 탑승지, 탑승시간, 좌석 등을 검색할 필요 없이 예치금과 탑승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예약이 완료되는 기능이다. 예약은 탑승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NH농협카드가 데이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 세종시·한국은행·BGF리테일 등 협업 NH농협카드는 BGF리테일, 세종시, 한국은행 등 기관과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BGF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CU편의점 방문 고객의 매출데이터와 NH농협카드 소비자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각 편의점 점별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세종시 등 지방자

치단체와의 데이터 협업을 단행했다. 한국은행에는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소비 데이터를 지속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매출·상권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스타트업 기업 발굴에 나섰다. ◆ 동반성장예 초점 스타트업 발굴 KB국민카드는 지급결제, 금융서비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퓨처나인(FUTURE9)' 7기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급결제(Payment) ▲금융서비스 ▲챗GPT·AI ▲플랫폼·콘텐츠 ▲컨슈머테크 ▲프로세스 혁신 ▲모빌리티·ESG ▲헬스케어 ▲글로벌 등 총 9개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김정산 기자

# 우리銀, 최고 연 5.5% 금리 정기적금 출시

가입기간 1년, 월 50%만원까지

우리은행은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최고 월 50만원까지 우리WON뱅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2.5%로 직전 1년 동안 입출식 상품을 제외하고 우리은행 적금이나 예금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에게 3.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5.5%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 출시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출시해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과 함께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이 없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예·적금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복잡한 조건으로 실제 우대금리 충족이 어려운 고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예적금 미보유 고객에게 쉽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isy2665@



# 아시아나, 임금협상 ‘난항’... “산은 노사관계 개입, 경영권 침해”

4년째 이어진 임금협상 논의  
역대실적에도 고통분담 직원들 강요  
물가상승률 등 높은 수준 아니야  
APU, 무제한 투쟁 돌입 할 수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금협상 관련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APU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이견의 폭을 좁혀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APU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이어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20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2019~2022년 임금 협상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상안을 내놓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4년간 총 2.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0%를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연 2.5% 인상률 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한 후 새로운 인상률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노조는 연 12.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다 10%로 낮춰서 내놨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코로나 고통 분담을 직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0% 인상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채권

단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라”며 임금협상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항공업계에서는 엔데믹 진입에 사기 진작을 위한 임금 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APU도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임금 10%를 인상한 바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기본급 13%를 인상, 제주항공도 2023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기본급을 10% 인상하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소폭이라도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만약 산업은행의 요

구안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연간 인상률이 0.62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당초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임금 인상률 절충안으로 연 7%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런 지점에서 채권단의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최도성 APU 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이라도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APU 집회에 지지발언에 나선 최현조 조종사노조위원장은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단체행동권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의 잘못 때문일 뿐 직원들은 헌신하기만 했다”며 “이제 영업을 이익이 발생한 데다가 물가상승률만큼은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PU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사측과 조정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서울지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APU 측은 3차례 조정을 진행한 뒤에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2023년도 임금협상은 이번 협상과 함께 이뤄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이기에 파업기간에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규정상 파업 중에도 국제선은 80%, 국내선 50% 이상 노선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파업 참여 인원은 제한적이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필수 업무 유지 기준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국토부는 지난 10일부로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LG전자, 항균·수용성 ‘유리파우더’ 만든다

올 시장규모 기준 24兆 전방  
신개념 기능성 소재사업도 추진  
“ESG 경영 가속화 신성장동력 될 것”



LG전자가 개발한 유리파우더.

LG전자가 기능성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LG전자는 유리 파우더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리 파우더는 유리를 분쇄해 만드는 미세한 입자다. 화학적으로나 열적으로 안정하고, 변색이 없으며 내구성도 높다.

LG전자는 유리 조성 설계 기술과 가전제품 실사용 환경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항균 성능을 더했다. 플라스틱과 섬유, 페인트 코팅제 등 소재에 첨가하면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을 추가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정관 변경을 통해 ‘유리 파우더 등 기능성 소재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한 바 있다. 1996년 유리파우더 연구를 시작해 특허만 219건에 달

한다. 경남 창원 스마트파크에 연간 4500톤 규모 생산 설비도 갖췄다.

실제 제품에도 적용해왔다. 2013년 북미에 출시한 오븐을 시작으로 오븐 내부 세척을 간편하게 하는 ‘이지클린’에 더해, 2022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에 몸에 자주 닿는 플라스틱 부품에 항균 유리 파우더를 첨가해 위생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유리소재 성분을 정밀하게 방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수용성 유리 제품까지 개발했다. 물에 녹으면 무기질 이온 상태로 변해 바닷속 미세조류와 해조류 성장을 도와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적조 현상을 줄이는 황토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LG전자는 항균 유리 파우더 사업을 시작으로 신개념 기능성 소재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는 기준으로 24조원 수준이 예상된다. 생태계 복원 시장으로도 확장하면서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오는 22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2023 부산해양주간’에 참여해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유리의 재발견’을 주제로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 신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전자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유리 소재가 가진 고유한 한계를 뛰어넘어 활용 영역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며 “기능성 소재 사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며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한화큐셀, ‘방음벽 태양광’ 시제품 최초 공개

부산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화큐셀의 부스 조감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방음벽 태양광’ 모듈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화큐셀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청정 에너지관에 부스를 마련해 전세계에 공급하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과 최신 태양광 기술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엑스포 등의 행사를 통합한 최대 규모의 기후산업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기관이 주관한다.

이중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방음벽 태양광 모듈은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과 빛을 흡수하는 빛 공해 저감 기능을 지닌 제품으로, 도로·철도의 방음

벽 역할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한다. 고장, 화재, 스파크와 같은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해 차단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또 모듈을 수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와 주된 발전 시간이 달라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금호석유화학, 탄소저감 타이어 만든다

미 이데미츠코산과 양해각서 체결

금호석유화학은 일본의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인 이데미츠코산(Idemitsu u Kosan)과 바이오 SM(스티렌 모노머)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의 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는 양사의 협력을 조율하고 바이오 폴리머 시장 개발을 담당한다.

이데미츠코산은 일본 내 2위 정유사이자 최대 SM 제조사로, 금호석유화학은 이데미츠코산이 공급하는 바이오SM을 사용하여 주력 제품 중 하나인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SBR을 생산할 계획이다. 협력에 참여하는 회사

들은 2024년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안 논의 및 생산 최적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바이오 SM은 바이오 납사(Naphtha)로부터 만들어지며, 바이오 납사는 식물 유래의 원재료 등으로 제조한다. 전통적으로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은 주로 원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이용해 만들었으나,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바이오 SM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 및 온실가스 발생량, 즉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뿐 아니라 ESG경영 협력 네트워크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애경케미칼, ‘가소제·윤활기유·폴리올’ 국제 친환경 인증

친환경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애경케미칼이 가소제와 윤활기유, 폴리올 등 3개 항목 제품군 전체가 국제 친환경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애경케미칼이 생산하는 가소제와 윤활기유, 폴리올 항목에 속하는 제품으로, 각각 재활용 PET를 활용하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다. 애경케미칼 측은 “친환경 저탄소 제

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고객사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이고 고객 제품의 ESG 경쟁력까지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준으로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원료가 사용됐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전 세계 130여 개 정유화학사와 원료 제조사 등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애경케미칼은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ISCC PLUS 인증 제품군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비전인 ‘Green Initiative 3050’ 달성을 선언하고 친환경 소재 중심의 사업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애경케미칼의 행보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알뜰폰 '0원 요금제' 경쟁 활활... 5G 중간요금제도 첫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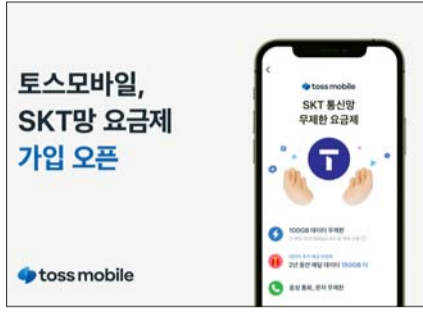
토스모바일 7GB 0원 판매  
MNO 3사망 상품 모두 갖춰  
코나아이 지역별 요금제 출시  
업체 2곳 중간요금제 선봬

알뜰폰 시장 경쟁이 뜨겁다. 알뜰폰 시장의 메인 사업자 중 1곳인 토스모바일이 '0원 요금제' 경쟁에 뛰어드는 등 신규 사업자로 알뜰폰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도 50GB 이상 5G 중간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 ◆ 코나아이 알뜰폰 시장 신규 진출

토스모바일은 2만4800원인 '데이터 7GB 요금제'를 0원에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 통화, 문자를 7개월 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다만 룰렛에 불루선(LTE) 데이터 사용량이 7GB를 넘기면 1Mbps 속도 제한이 발생한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0원 요금제는



토스모바일이 SKT망 요금제를 정식 출시했다. /토스모바일

파격가로 간다기보다 알뜰폰 서비스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허들을 낮추는 목적인 것"이라며 "한 번 써보고 서비스가 좋다면 계속 써보라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모바일은 출시 전부터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잇따라 0원 요금제를 내놓자 결국 토스모바일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0원 요금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이번에 SKT 요금제를 판매함으로써 3사망 상품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MVNO 사업자 중 MNO 3사망을 모두 연동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코나아이도 알뜰폰 브랜드인 '모나'를 공식 출시하고 알뜰폰 시장에 공식 뛰어 들었다. 코나아이는 지역별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유심 기반 특화 요금제까지 차례로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나는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동일한 데이터 품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코나아이의 지역커뮤니티서비스 경험을 이식한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해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는 차별화된 사용자 친화적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결재플랫폼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요금제는 알뜰폰 서비스 이용 시 통신료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상품권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나는 240여만 명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

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알뜰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알뜰요금제는 5종으로 구성됐으며, 고객들은 어떤 요금제를 써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 월 최대 15% 통신비를 인천e음 캐시백으로 제공받는다.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고객 확대에 나섰다.

## ◆ 50GB 이상 중간요금제 속속 선보여

이통사들이 50~12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중간요금제 상품을 알뜰폰 협력사에도 도매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이 50GB 이상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 계열사인 미디어로그(U+모바일) 및 CK커뮤스토리(슈가모바일) 등 U+알뜰폰 파트너사에 등록된 알뜰폰 업체 중 이 2곳이 50~125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들이 출

시한 5G 중간요금제는 50GB, 80GB, 125GB 등 3종이다. U+모바일은 3만 9000원, 4만 1000원, 4만 3500원에 선보였고, 슈가모바일은 4만3000원, 4만 2500원, 4만 700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알뜰폰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지만, 5G 요금제로는 이통사와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일어날 것이며, 토스 등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주요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라며 "0원 요금제는 더 기승을 부리고, 5G 요금제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통사들의 도매대가 수준이 60%에 그쳐 이통사들과 경쟁은 쉽지 않을 것으로 LTE가 아닌 5G 요금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F&B협동로봇, '두산매치플레이' 출격

두산로보틱스, '로키 푸드타운' 운영  
관람객에 먹거리·볼거리 제공

두산로보틱스의 F&B협동로봇이 두산매치플레이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에 총출동한다.

두산로보틱스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기간동안 식음료(F&B)협동로봇을 활용한 '로키(ROKEY) 푸드타운'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로키는 두산로보틱스의 모든 협동로봇을 지칭하는 마스코트다. 로키 푸드타운에는 ▲라버트-E(치킨) ▲누들로봇(쌀국수, 우동 등) ▲아리스(아이스크림) ▲닥터프레소(커피) ▲BB BEER BOX(생맥주) 등이 배치된다.



두산로보틱스가 17~21일, 춘천 라레나 골프클럽에서 운영하는 '두산로보틱스 로키(ROKEY) 푸드타운' 전경 이미지.

두산로보틱스에 따르면 '라버트-E'는 로보아르테와 협업해 출시한 튀김 솔루션으로 시간당 50개의 튀김 바스켓을 처리할 수 있다. 빠지는 치킨은 약 9분 30초, 순살 치킨은 6분 정도 걸린다. 치킨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떡, 핫도그 등도 튀길 수 있다.

'누들로봇'은 CJ와 함께 만든 누들

/양성운 기자 ysw@

조리 솔루션으로 15개 VIPS(빔스) 매장이 도입해 사용중이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우동, 쌀국수 등 10여종의 면요리를 시간당 최대 50그릇 만들 수 있다. '아리스'는 라운지랩과 협업해 출시한 아이스크림 솔루션이다. 고객이 원하는 맛과 모양을 선택하면 협동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다. 초콜릿, 바닐라, 딸기 등 10개 이상의 맛과 세 가지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추출할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의 모든 F&B 협동로봇 솔루션들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라며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최신 협동로봇의 유용성도 체험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디스플레이

### '올해의 디스플레이' 수상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SID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로, '올해의 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에 수여한다. SID가 매년 시상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상(DIA)' 중 가장 권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SID는 "QD-OLED는 청색 자발광 픽셀 기술과 산화물TFT(Oxide TFT) 기반의 혁신적 구조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확보했다"며 "퀀텀닷은 정밀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나노 크기의 소재로 QD-OLED는 이러한 퀀텀닷 구조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실제와 같은 완벽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친환경 산단 된다

SK㈜ C&C·한국남부발전 맞선  
'신재생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SK㈜ C&C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RE100(Renewable Electricity) 플랫폼' 사업 확장에 나선다.

SK㈜ C&C는 17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RE100 플랫폼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남부발전은 1999년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 부산 녹산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SK㈜ C&C는 산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RE100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단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비롯해 전력 사용량 분석,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간 전력 거래 계약 관리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공급사업자, 입주기업 간 전력 계약·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며 전력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 발전량·공급량·소비량도 실시간 측정·분석·예측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효율성도 높여 준다. 에너지 소비 피크 시간대를 예측해 발전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전력 거래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SK텔레콤은 SK스퀘어 자회사 IDQ,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회사 엑스게이트와 양자암호통신 기반 가상사설망(VPN) 기술 개발에 완료했다. /SKT

## SKT,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 개발 완료

(가상사설망)

엑스게이트 서버 장비에 연동

SK텔레콤이 SK스퀘어 자회사 IDQ,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회사 엑스게이트와 양자암호통신 기반 가상사설망(VPN)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SKT는 엑스게이트의 VPN 서버 장비에 IDQ의 QRNG(양자난수생성기) 칩셋을 연동해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을 개발했다. 기존 대비 강력한 보안이 가장 큰 장점으로 올해 하반기 상용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VPN은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 별도 전용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VPN은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 및 해독 과정을 추가해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송수신 시 진행되는 암호화 및 해독에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적용됐다. 양자 컴퓨팅에 의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암호화 방식에 양자난수생성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엑스게이트의 VPN 장비에 QRNG 칩셋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기존 VPN 이용 시 필요한 장비

외에 별도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월사용료도 기존 VPN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도 높다.

보안 기술은 최근 챗GPT 열풍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갈수록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악성코드 대량 생산 등 가능성이 대두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국내 보안시장의 시장 규모는 6조 7195억원으로 2021년 대비 9% 성장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4.8%,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연평균 39.8%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 5793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SK윌더스, 엑스게이트 등과 함께 국방, 공공, 금융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SKT 하민용 CDO는 "VPN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춘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SK윌더스, 엑스게이트 등과 협력해 국내 공공, 국방, 금융 등 높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ION SUPPLY DRINK

#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POCARI SWEAT is a drink which supplies water and electrolytes lost through perspiration. POCARI SWEAT is quickly absorbed into the body tissues due to its fine osmolality and contains electrolytes for replenishing body fluids. POCARI SWEAT is thus highly recommended as a beverage for such activities as sports, physical labor, after a hot bath, and even as an eye-opener in the morning.

500 ml (120 kcal)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3년간 영업익 3배 성장... 와인문화 선도기업 자리매김”

## IPO 간담회

### 나라셀라

120개 브랜드, 1000종 공급권 보유  
독보적 브랜딩 능력 높은평가 받아  
10년 이상 장기거래 브랜드 46곳  
수요예측 거쳐 22~23일 청약진행

“나라셀라는 고품질의 와인을 최상의 상태로 보관·유통함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과 전문 인력,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기업이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1990년 설립된 나라셀라는 칠레의 ‘몬테스 알파’를 단일 독점하는 수입사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나라셀라는 120여 개 브랜드, 100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와인의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라셀라의 와인 포트폴리오는 국내 와인 유통사 가운데 가장 폭넓게 구성돼 있다.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나라셀라

지난해 국내 와인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2019년 8000억원과 비교해 2.5배 커졌다. 국내 와인 시장 성장세와 함께 와인 수요자의 니즈는 점차 다양화·고급화 돼가고 있다. 나라셀라는 양질의 와인을 다양하게 갖추고 와인 보관 및 유통에 특화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나라셀라 매출도 지난 2019년 469억원에

서 지난해 1072억원으로 늘며 두 배 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6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증가했다.

나라셀라의 독보적인 브랜딩 능력은 와이너리들이 자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주요 와이너리들은 업계에서 예외적으로 나라셀라에 독점 공급자 서한을 발급하며 높은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나라셀라와 거래를 지속하는 와이너리가 신규 와이너리에게 나라셀라를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로 소개하는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셀라와 10년 이상 장기 거래를 유지하는 와이너리는 2022년 기준 총 121개 브랜드 중 46개 브랜드다. 이는 전체 거래 와이너리 중 38%에 달하는 수치다. 상장사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미개척·신규 와이너리와의 협상에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나라셀라의 시장 장악력과 경쟁우위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몬테스를 포함해 총 10개 브랜드, 22개 와인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나라셀라는 향후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미개척 와이너리 발굴,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프리미엄 와인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나라셀라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기존 강점인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 지속 확대 ▲자체 리테일샵 강화 ▲판매채널 확대 및 다각화로 고객 접근성 제고 ▲도심형 물류센

터 구축으로 수도권 범위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혁신 ▲와인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승철 대표는 “와인은 각 나라의 역사와 예술 등 다양한 문화가치가 녹아든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에 가장 부합하는 주류”라며 “상장을 계기로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와인문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나라셀라는 16일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2~23일까지 일반 청약 받는다. 나라셀라의 공모주식 수는 145만주이며, 공모 희망 밴드는 2만~2만4000원이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90억~348억원 규모이며 내달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아파트 완판 행진... 주택업계 ‘분양 채비’

성수기·마케팅·규제완화 맞물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청약  
9550명 몰려 경쟁률 최고 494:1

지난 1분기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신규 분양을 연기하던 주택업계가 최근 성공사례가 이어지면서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 초 서울에서 둔촌주공 마저 미분양을 걱정하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해 성수기 효과, 업계 마케팅 전략,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다.

실제 1~4월까지 분양실적은 계획물량 5만4687가구 대비 71% 줄어든 1만5949가구에 그칠 정도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수요가 늘면서 3월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소폭 줄었다. 청약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 및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분양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가는 물론, 브랜드 및 단지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청약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1순위 청약마감미 이 어지자 업계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21가구 모집에 9550명이 몰려 평균 78.9대 1, 최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착한 분양가,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많은 관심

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근분양을 완료한 단지에서도 전 세대 계약 완료로 시장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분양한 ‘동탄 파크리츠’의 2차 660가구가 전세대 계약을 완료했다. 1차 물량 1403가구가 완판을 기록한 데 이어 2차도 완판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분양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단기간에 완판된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이다. 이 단지는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침체된 분양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관건은 분양가와 입지”라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양증권 ‘브루킨즈 아카데미’ 발대

한양증권은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브루킨즈 아카데미’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브루킨즈 아카데미는 증권 업계에 참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양증권에서 출범한 대학생 싱크탱크 조직이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 SG증권발 투자 피해자, 집단 손해소 움직임

‘사기 피해자’ 입증 쟁점될 듯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을 비롯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등 다수의 법무법인들이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에는 SG발 ‘사기’ 피해자 800여 명이 집단 대응을 위해 모인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소송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사기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이 어떻게 속였는지, 나아가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시세 조종 가담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염두해 뒀거나, CFD(차액결제거래) 투자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도 개인 정보를 맡겼다면 피해보상은 차치하고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라 대표 일당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한 이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다음으로 앞서 말한 ‘피해자’ 입증 관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건 소속의 공형진 변호사도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부산·천안·담양에 AI 도시계획 R&D 적용

국토부, 시범적용 실증사업 대상 선정

부산광역시, 천안시, 담양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연구개발(R&D)기술 시범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세 곳을 AI 도시계획 R&D 등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실증을 거쳐 기술의 정확성을 보완해 나가고, 해당 기술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및 프롭테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기술 실증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 코스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코스콤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17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코스콤이 후원한 취업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다. 교육이 곧 경력단절여성의 온라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신하은 기자

# 中 “디플레이션 없다” 강조... 금리인하 기대감 ‘솔솔’

## ● 차이나 뉴스&리포트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보다 ↓  
생산자물가지수 반년째 하락세  
“물가 미미한 변동 주목 할 것”

중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것을 암시하면서다.

17일 차이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실시 보고서’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공급과 신용을 적절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경제에 유동성이 과도한 수준으로 흘러넘치게 않게 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가 더 적극적인 통화완화를 시사한다며 다음달 지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한 근로자가 옷가게 창문 진열대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 회복은 4월 소매 판매와 기타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한 후 소비와 수출 수요의 압박에 직면했다고 화요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AP·뉴스시

급준비율을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동성 공급이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용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논쟁을 촉발한 것은 물가지수다. 작년 4월과 12월,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등 지급준비율 인하

로 유동성 공급이 이어졌지만 물가는 오히려 내렸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쳐 전월(+1%)보다 낮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반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2월 -1.4%, 3월 -2.5%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경제 지표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6%, 4.7%에 그쳐 시장 예상치에 모두 못 미쳤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단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며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분기에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번엔 “물가의 미미한 변동”에 주목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곳도 나왔다. 인민은행은 지금까지 통화완화 입장은 고수했지만 지급준비율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설뿐 정책금리 등 적극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씨티그룹은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을 2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초기 리오픈(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약해졌다”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향후 통화정책에서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금리 결정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목표지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확산... 韓 이익되는 정책 방향 마련

산업부-대한商議, ‘CFE 포럼’ 출범  
민간기업·다수의 전문가 등 참여  
연내 인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하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

을 가졌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해당 CFE 포럼을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한 주요 기업 및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지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에

서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준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충북, 1주일만에 10곳서 ‘구제역’ “국내 백신으로 방어 가능 할 것”

농식품부 방역관리 총력  
해외 유입... 백신접종 미흡 확산  
염소 농장 1곳에서도 첫 발생

충북 청주 한우농장 등에서 확산하는 구제역이 첫 발생 신고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긴급백신 접종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이달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 등 총 10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를 보

면, 이번 해외 유입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인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이달 10일 이전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2주인 바이러스 잠복기, 2주의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백신접종을 완료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구제역 가축 방역 상황회의에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시

기 발생지인 청주와 증평, 인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농가에는 이날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에서 제외되고,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긴급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한다.

구제역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 지역의 긴급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인접 시군 농장,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 중이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완료했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 약 11만호 농장주는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 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체 검사를 5월 22일~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또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26일까지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민간투자 촉진”

(경제부총리)

## 비상경제장관·수출투자대책회의

정책금융·공급망 등 지원 계획  
산업부 통해 세부 방안 발표

중소 맞춤형 수출 보완 대책도  
해양식량자원 수출 증진 도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진하겠다”며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디스플레이 세부 지원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산물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중

점 부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식량자원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할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여 지속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다. 수출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곧 내놓을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웃도는 상황에 수출가격 경쟁력은 이미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수출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중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되며 ‘부담금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염전 자외선 버틴 균… 화장품으로 재탄생

극호염성 미생물 16종 후속 연구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항산화 효과

태안·신안 지역 등 국내 염전에서 살아남은 균을 담은 화장품이 머지않아 개발될 전망이다. 이러한 호염성(짠 것을 좋아하는 성질) 균이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천대 서명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외선에 내성을 가진 극호염성 미생물(고균) 16종을 발견했다고 17

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목에 등재될 예정인 이 균종들은 화장품 소재 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거치게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염전 등 국내 드문 극한 환경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을 국가생물종목목에 등록해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들 생물자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균종들은 염전의 강한 자외선 및 수분 증발에 의한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박테리오투베린(bacterioruberin)이라는 붉은색 유기 색소 카로티노이드

를 만들어 낸다.

연구진은 이 색소의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와 항산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식물에서 유래된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에 비해 더 높다는 서방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박테리오투베린 색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고급 향노화 피부관리 제품이 독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이에 착안해 이번에 발견한 자생 호염성 고균들을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기획전’ 선보

인천국제공항공사·국립중앙박물관 협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백제 문양벽돌과 조선 후기 목가구를 주제로 한 ‘2023 인천공항 박물관 특별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16일 인천공항에 위치한 인천공항 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규 전시는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 문양벽돌 소장품을 전시하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과 인천공항박물관의 조선 후기 목가구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이 : 한국의 가구>의 두 종류의 기획전시로 구성됐다.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 전시는 박물관 안쪽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국립부여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으로서 약

1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문양벽돌 진품 8점을 선보인다.

박물관 입구 전시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전이 : 한국의 가구> 전시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박물관 오픈 이후 공사가 처음 선보이는 자체 기획 전시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공사가 소장한 조선 후기 목가구 10점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대 목가구 12점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을 이용하는 여객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인천공항 박물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3층 서편 122번 탑승구 부근(면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허정윤 기자 zekova@

## 중진공-SK실트론, 中企 ESG 경쟁력 제고 나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차세대 ESG 비즈니스를 선도하기 위해 SK실트론과 함께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진공은 SK실트론과 17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SK실트론 본사에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주요국들의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ESG·탄소중립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탄소중립 진단 무상 지원 ▲우수기업에 실선 인센티브 제공 ▲ESG·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 ESG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아울러 중소기업 탄소 상쇄 배출권 시장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진공은 협력기업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ESG·탄소중립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



(왼쪽 3번째부터)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과 이영석 SK실트론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경북 구미 SK실트론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팅을 연계 지원한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ESG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실트론은 협력기업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성한 동반성장 협력펀드를 활용해 ESG·탄소중립 실천 협력기업에 설비구매 및 운영자금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 우영환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협업을 넘어 민·관 ‘협치’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과 대기업이 쏠아올린 최초의 신호탄인 만큼 최근 불거진 반도체 침체와 무역 적자라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도약하는 혁신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모기업과 함께하는 공급망 ESG·탄소중립 공동대응 지원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공급망의 ESG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계 ESG·탄소중립 생태계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견련-통계청,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

정확성 대폭 강화… 교육 등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통계청과 협력해 중견기업 통계 고도화에 나선다.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중견기업 경영 혁신 및 신사업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련은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반영한 통계 품질 제고와 정책적 활용성을 최대화한 종합적인 중견기업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통계청이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기업수, 매출, 고용 등 부문별 통계의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견기업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



(왼쪽부터)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훈 통계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도록 중견기업 통계 서비스 개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정책은 물론 중견기업 경영 전략이 보다 풍부한 통계 데이터 기반 위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에 맞는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통계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김수미

정경순

김서라

뮤지컬

# 친정엄마

세상에 하나뿐인 내편  
가슴 저미는 먹먹한 이름



디큐브아트센터

2023.03.28~06.04

작가|고혜정 연출|김재성 음악감독|허수현 안무감독|김수한 무대디자인|김상민 조명디자인|최신영 음향감독|정호진 영상디자인|박준 소품디자인|권민희 의상감독|김혜민 분장|최기웅 제작무대감독|서정민 무대감독|김모서 무대조감독|이종건 제작피디|안숙녀



NAVER 뮤지컬 친정엄마



INTERPARK 티켓링크

주최

SUK! COMPANY

TV CHOSUN

문의 : 070-4179-1775

# 경북도, 원전 생태계 회복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맞손

노사 합동 비전 선포·전략 구체화  
SMR·원자력 수소 업무협약 체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합의도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철우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

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

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선포식은 정부의 에너지 안보

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한국전력기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사람을 향한 에너지)"이라는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

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오늘 노사가 함께 발표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광양시

###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2022년 실적을 평가했다.

광양시는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7,500만원과 포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으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부산시, AIoT로 관광폐기물

(지능형 사물인터넷)

### 회수·모니터링 기술 개발한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선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추진

부산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관광지 재활용 폐기물 회수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인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시설공단, 부산 지역기업인 코끼리공장·스마트뱅크와 추진 체계를 구성해 '관광지 자원 재순환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재활용품 회수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2023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여간 총 29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행량, 인구 밀집도 데이터를 통한 폐기물 분리수거 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실증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이뤄진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1차 연도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구축 ▲재활용 수거 효율 향상 기술 ▲CCTV 유동인구 데이터 세트 ▲수거기 재배치 및 차량 동선 최적화 설계, 2차 연도에 ▲이동형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기 ▲폐기물 분류를 위한 초분광-인공지능 인식 모델 ▲CCTV 상황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3차 연도에 ▲CCTV 인구 과밀도 예측 모델 ▲재활용 폐기물 수거함 동적 재배치 및 수거 차량 동선 최적화 기술 실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과제가 부산시민공원 실증을 통해 관광지 자원 재순환 및 다중 밀집 인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 실증 이후 확산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가 관광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유도를 통한 관광지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 만인산,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대전시내 학교 대상 추진  
환경부 2~3억 가량 지원

대전 초·중·고 학생들이 쓰레기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관련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 환경부가 2~3억원 가량 지원한다.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환경과 친구되기', '환경교구를 활용한 재미있는 환경교구 체험교실'이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과 친구되기'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만인산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숲 자원을 활용해 쓰레기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 상반기 3월 23일~6월 15일, 하반기 9월 11일~11월 9일 나눠서 진행된다.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대전시내 학교 대상으로 총 21회 1378명(1회 40명 내외)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교구를 활용한 재미있는 환경교구 체험교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퍼즐게임을 통한 갯벌 알기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팽귄 블록 놀이 등이 마련됐다. 올 상반기 3월 29일~6월 30일, 하반기 7월 3일~11월 17일 진행된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19회 2630명(1회 30명 내외)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좌)아바텍과 경상북도, 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기념촬영 사진(왼쪽부터 이달희 경북도경제부지사, 박명섭 (주)아바텍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

## 구미시, MLCC 생산 '강자' 된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주)아바텍, 1018억 투자·240명 고용

구미시는 16일 시청에서 (주)아바텍 박명섭 대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해 (주)아바텍과 경상북도, 구미시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주)아바텍은 2024년까지 총 1018억원을 투자해 240명을 신규 고용하고 산업용 및 차량용 고(高)용량, 고(高)전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추가 증설, 생산할 계획이다.

MLCC는 전기회로에 전기를 저장하는 부품으로 전기를 활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앞

은 두께 내부에 다량의 전기를 축적해 필요시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주)아바텍은 2019년부터 MLCC 기술을 자체 개발해 솔라엠티테크놀로지(이스라엘), LG디스플레이(주) 등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5G를 비롯, 급격히 발전하는 IT·전기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한편 (주)아바텍은 2000년도 설립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 식각 및 도금 진공 박막 코팅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생산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식각·코팅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 경북교육청, 특수학급 교실 환경 개선

총 48교·65학급 지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공간 혁신 및 환경 개선 사업 대상 학교 지원'을 위해 도내 특수학교(급) 총 48교, 65학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급 환경개선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학교별,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된 특수학급의 시설, 설비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간혁신형 교실 조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형 특수학급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발달과 감성을 키우는 놀이공간 ▲학생의 도전 행동 및 위기 행동 등의 중재를 위한 심리 안정 공간 ▲바리스타, 공예, 제과 제빵 등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

노후된 특수학급 교실, 장애학생 중심의 공간 조성이 미비한 교실에 대해 유·초·중·고 특수학급은 학급당 4000만 원 이내, 특수학교는 5000만 원 이내 총 20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비는 진로직업교실, 치유공간, 쉼터, 여가공간 조성, 낡은 교실 리모델링비와 관련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에 사용된다.

/경북=장영우 기자

여수시

### '연등천 저류지' 연내 착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연등천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연등천 저류지'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253억 원을 포함한 389억 원을 투입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는 3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하천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찾아 쉬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안동시

### 탈·누각 래핑 항공기로 홍보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 이동원)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항공과 협력해 안동의 탈과 누각(병산서원 만대루)이 래핑(wrapping)된 항공기(Boeing 737)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홍보한다.

해외 잠재 관광객들에게 안동 관광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동의 전통과 문화를 담은 항공기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을 비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동체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캐릭터 이미지와 지역명 '안동'을 다양한 언어로 표기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시

### '반려견 순찰대' 본격 운영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동명대학교에서 '2023년 부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견과의 일상적 산책 활동에 '범죄예방 순찰'이라는 공격 임무를 접목한 시민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순찰대원들은 반려견과 산책 활동 중 지역 사회 곳곳을 다니며 범죄나 사고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찰대에 선발된 반려견에게는 조끼가 부여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스쿨어택에 구름팝업, 존윙4와 컬래버 '이색 마케팅'

## 제로음료 마케팅 2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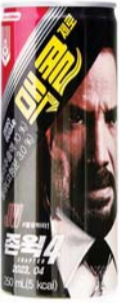
**롯데칠성** 성수동에 밀키스 팝업 한정판 메뉴에 굿즈·체험존 마련  
고등·대학교 대상 탐나는 스쿨어택  
**일화** 맥콜제로 등 존윙4와 컬래버  
**세븐일레븐** 제로탄산음료 투표  
715명 추천 벤츠 등 경품 증정

'헬시 플레저' 열풍과 맞물리며 제로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 음료 브랜드들이 마케팅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신규 제품 출시에 이어 컬래버레이션(협업)부터 팝업스토어, 스쿨어택 등 다채로운 이색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제품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제로 음료를 필두로 한 이색 마케팅 열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제로 음료 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을 꼽자면 롯데칠성음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드와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팝업스토어를

맥콜 제로, 부르르 제로 사이드. /일화



밀키스 구름 팝업스토어.

/롯데칠성음료

운영중이다. 제로 칼로리 유성 탄산음료 '밀키스 제로' 및 '밀키스'의 팝업스토어를 서울 성수동 카페 '테디스오브'에 오픈한 것.

팝업스토어 콘셉트는 '일상 속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밀키스 구름 하우스'로 밀키스의 부드러움을 '구름'을 통해 표현했다. 1층에는 대형 밀키스 폭포, 인기 캐릭터 '시나모롤'이 함께 반겨주는 웰컴존, 한정판 메뉴를 판매하는 키친이 준비

되어 있으며 2층은 시나모롤과 밀키스가 협업해 제작한 굿즈존, 솜사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존, 구름 그네와 다양한 포토존, 구름 속에서 힐링하는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칼로리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제로'는 오는 5월 28일까지 '탐나는 스쿨어택'과 '탐나는 선물어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탐나는 스쿨어택은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득표수 상위 5개 학교를 선정, 1위에 오른 학교에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방문해 공연하고 탐스제로를 가득 실은 탐스제로 트럭을 통째로 선물한다. 2~5위로 선정된 학교에도 탐스제로 트럭이 찾아간다. 탐

스제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이벤

트 응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탐나는 선물어택은 탐스제로 구매 영수증을 촬영해 이벤트 응모 사이트에 인증하면 즉석 당첨 톨렛 이벤트 응모권 1장이 지급되는 행사로 톨렛 이벤트 응모권 10장 지급 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최신형 휴대폰 등을 선물하는 Big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된다.

식음료 건강기업 일화는 지난 4월 영화 '존 윙4'와 컬래버레이션한 '맥콜 제로'와 '부르르 제로 사이드' 등 제로 탄산음료 2종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올 초 맥콜 제로를 새롭게 선보인데 더해, 북미 박스오피스 1위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콘텐츠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며 화제성을 더한 것이다.

일화는 짜릿하면서도 청량하고 깔끔한 제로 탄산음료의 아이덴티티에 주목해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했다. 실제로 해당 제품들은 통쾌한 액션으로 M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존윙 시리즈와, 시원하면서도 짜릿한 탄산감이 특징인 제로음료와의 청량한 조합으로 출시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은 기존 패키지 대신 '존 윙4'의 포스터를 활용, 영화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을 전면 배치해 영화의 강렬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았다. 두 제품 모두 설탕 대신 대체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를

낮췄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제로 음료의 인기에 주목해 색다른 투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31일까지 모바일앱(세븐앱)에서 제로 탄산음료 브랜드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로탄산음료를 구매하면 세븐앱에서 투표권을 받아 가장 좋아하는 제로 탄산음료 브랜드에 투표하는 행사로 코카콜라제로, 칠성사이다제로, 웰치스포도제로, 맥콜제로 등 36종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세븐일레븐은 투표 고객 가운데 715명을 추천으로 뽑아 벤츠 E클래스 자동차, 샤넬 플래백, 뱅앤올룹슨 스피커, 아이폰14 프로, 세븐일레븐 1만원 모바일 상품권 등 총 1억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제로 음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설탕대신 사용되고 있는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 조절에 효과가 없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WHO에서 사용 자체를 권고한 인공감미료에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와 스테비아 파생물 등이 포함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GRS, 1분기 영업이익 64억 '순항'

매출액 26% 증가한 2191억 기록  
엔제리너스 점당 매출 54% 증가

롯데GRS가 FC사업 부문(버거, 커피, 도넛)과 컨디션 사업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순항중이다.

롯데GRS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7814억원과 영업이익 17억원(별도기준 7733억원 매출액과 5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약 26% 증가한 2191억원, 영업이익 64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전 브랜드 직영점의 점당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38% 증가했다. 특히 FC

사업 부문의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브랜드의 점당 매출이 각각 약 41%, 약 54% 증가하며 지난해 매장 운영 효율화를 통한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GRS는 2021년 7월 '브랜드 이노베이션 TF'를 정식 팀으로 격상하며 브랜드 전략에 온 힘을 쏟았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1호 플래그십 스토어 '블고기랩'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블고기버거 양상추와 패티를 증량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노후점포를 리뉴얼하는 등 활동도 전개했다.

엔제리너스 역시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교체했다. 로고서체를 변경하고 브랜드명 표기를 'Angel-in-us'에서

'ANGELINUS'로 바꿨다. 간편한 식사와 디저트 메뉴를 강화한 특화 매장을 통해 브랜드 개성도 높였다.

롯데GRS는 올해 1분기 흑자 성과를 바탕으로 FC사업 부문의 각 브랜드 별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 향상 등 매장 운영 효율 강화와 함께,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는 컨디션 사업의 임대 사업 확대와 신규 FC모델 창출 등을 통한 기업 가치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컨디션 사업의 경우 롯데GRS는 현재 14개 식음사업장에서 4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푸드하우스 스키야31 푸드에비뉴의 브랜드명을 통합한 '플레:이팅'을 통해 컨디션 사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 호주서 수출상담회... 롯데, 중소기업과 상생

코트라와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롯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2016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롯데지주와 유통 6개 계열사가 협업해 그룹차원의 통합 사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유통사뿐 아니라 식품 2개사(롯데웰푸드·롯데GRS)와 롯데벤처스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0개사와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지역 바이어 약 150명이 상담회에 참여한다.

1대 1 수출 상담, 상품 입점 노하우 제공,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 해외 유통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국내 중소기업 110개 상품을 전시하는 쇼케이스 행사도 진행한다. K-POP 커버



지난해 9월 개최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독일' 수출상담회 현장 모습. 롯데는 올해 유통 계열사 뿐 아니라 식품 2개사와 롯데벤처스도 합류한 수출상담회를 연다. /롯데쇼핑

댄스, K-푸드 쿠킹쇼, 한국무용 등 각종 한류 문화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개최지인 시드니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만큼, 전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서현 기자

## LF, 닥스 '위브 반팔니트' 출시·기획전

LF는 영국 클래식 브랜드 닥스(DAKS)의 '위브 반팔 니트(Weave knit)'를 출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LF몰에서 여름 시즌 니트 스타일링 기획전을 진행한다.

주로 겨울에 즐겨 찾은 소재인 니트는 지난해 프레피 캐주얼 룩이 인기를 얻으며 여름에도 각광 받았다. 니트 소재의 넓은 조직 덕분에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또,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느낌을 연출하기 쉬워 활용도가 높다.

이번에 출시한 닥스의 '위브 반팔 니

트'를 여름 내내 청량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특수 니트 마감 기법과 고급 강연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통기성이 좋다.

반팔 니트는 목 부분의 칼라가 슬림하게 디자인되고 텐션감 있는 밀단 시보리가 더해져 자켓 아우터와 매치하기 좋고 단품으로 입기에도 적합하다.

또 LF몰은 '남자들이 스타일리하게 여름을 준비하는 방법'을 주제로 닥스 위브 반팔 니트와 함께 연출한 여름 착장 스타일링 기획전을 6월 12일까지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현대백화점 '시에' 월매출 7억 돌파

현대백화점이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국내 영패션 브랜드들이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국내 영패션 브랜드 '시에(SIE)'는 더현대 서울에 입점한 후 지난 3월 월 매출 7억원을 넘겼다. 영패션 브랜드 단일 매장 역대 최대 월매출이다.

시에(SIE)는 2020년 론칭한 여성복 브랜드로 지난해 1월 판교점에서 업계 최초로 진행한 팝업 행사 당시 1주일간 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패션브랜드 팝업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 쿠팡, 여름가전 3000여개 최대 65% 할인

쿠팡이 28일까지 최대 6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름 가전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프리 서머(Pre-Summer) 페어'는 LG전자·삼성전자·캐리어·파세코 등 국내외 인기 가전 브랜드 30곳 이상의 가전제품 3000여 개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에어컨·선풍기·서큘레이

터 등 냉방 가전부터 냉장고·세탁기·모기퇴치기처럼 다양한 품목을 망라했다. 제품에 따라 제휴카드도 추가 8% 할인도 제공한다.

에어컨,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을 로켓배송해 설치해주는 '로켓설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배송날짜를 정할 수도 있다.

/김서현 기자

YouTube 동영상을 제공



# 범죄예방·아동보호까지... 우리동네 방범초소 '편의점'

편의점 5개사 점포 수 5만797개  
플랫폼들 '편의점 결제 도입'  
일산, 범죄예방·약자보호 협약  
지자체 협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점주·직원, 업무 과중·안전 문제도

편의점의 역할이 소규모 소매점포를 넘어 사회에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업계 경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편의점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의 방범초소이자 다양한 소외현상을 해결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 역할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직원의 안전과 가중되는 업무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 결과, 편의점 업계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편의점의 서비스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편의점 5개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점포 수는 5만797개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편의점 수는 8493개로, 1km<sup>2</sup>당 14개에 달한다.

편의점 점포는 다양한 입지 조건을 고려해 개점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잠재



17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국무조정실의 불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에 따라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있다. 편의점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정작 점주와 직원의 업무량 과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시스

적 소비를 일으키는 배후인구와 가시성이다. 주택지 등이 아니라도 일정한 수의 인구가 유동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점포 크기와는 별개로 존재를 즉시 판별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고 사업영위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편의점은 언제나 다수가 존재를 인식한다. 또 24시간 운영으로 낮과 밤에 관계 없이 존재감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살려 편의점은 최근 지역의 다양한 영역의 소외계층을 보듬고 있다.

지난 2일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오프라인 현금 결제 방식으로 '편의점 결제'를 도입했다.

편의점 결제는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이 주문 후 생성되는 바코드를 편의점에 가져가 현금 등을 내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10대 고객부터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다양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다.

18세 미만 고객들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 보호자가 각종 서류와 도장을 갖춰 은행을 방문해야 정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스타일 관계자는 편의점 결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설명하고 "편의점 결제 도입으로 카드결제 등에 어려움이 있던 10대 고객

들의 지그재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도 편의점의 몫이 됐다. 이달 12일 일산서부경찰서는 GS25, CU, 세븐일레븐과 범죄예방 및 관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학철 일산서부경찰서장은 "관내 GS25 편의점 이용자가 일일 평균 3만2000명에 달하는 등 이번 협업 체결이 사회적 약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밀착형 예방 활동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보다 앞서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7년 CU가 처음으로 POS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종 예방 신고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나머지 편의점사들도 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CU에 방문한 고객이 POS 모니터에 송출된 장기실종아동 홍보물에서 자신의 유년기 사진을 발견해 20년 만에 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편의점사들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하기도 했다.

반면, 편의점이 마을의 소규모 초소 기능을 하면서 점주와 직원의 업무 과

중과 안전 보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점포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A편의점 사 점주 김모씨는 "즉석 조리 식품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다"며 "상품을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 외에도 택배 서비스나 ATM 등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이를 지도하는 역할까지 모두 직원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수거한다는 식의 뉴스를 보면 일이 느는 구나 싫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17일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내부 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하도록 했던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불투명 시트지가 담배광고뿐 아니라 계산대의 직원까지 가려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년 넘게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도입 전부터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었더라도 강력 범죄 유발을 우려해 반대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편의점주와 근무자들이 지난 2월 인천 편의점주 살인사건을 비롯한 무수한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죄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CXL 바이오, '의약품 물류 연구센터' 본격 운영

'스마트 밸리데이션센터'  
의약품 냉장차량·컨테이너 품질 검증  
바이오물류 분야 등 통합 연구 추진

CXL 바이오(BIO)가 바이오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GSC) 솔루션 전문 브랜드를 선보이는 GSC 센터를 17일 오픈했다.

CXL BIO의 GSC 센터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하고 지상 4층 건물로 완공되었다. 주요시설로는 바이오의약품 전용 물류창고와 의약품 냉장 차량 및 컨테이너의 품질과 안정성을 실내 챔버에서 검증 가능한 국내 유일의 스마트 밸리데이션센터가 있다.

CXL BIO는 글로벌 종합물류 회사 세종그룹이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한 글로벌 브랜드다. 사업분야로는 바이오의약품 및 신선농산물 서플라이체인 솔루션, 의약품 냉장·냉동 차량 및 컨테이너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스마트 밸리데이



CXL BIO 한명수 대표가 17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내 첫 GSC센터 열고 오픈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션센터를 운영하는 등 바이오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통합 물류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 세종그룹의 해외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으로 바이오 제품들을 공급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999년 창립한 세종해운그룹은 한국

을 시작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현지 법인을 구축하며 글로벌 종합물류 회사로 거듭나며 물류분야에 혁신적인 도전과 연구를 지속해온 기업이다. 국내 최초 할랄물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스트랑 시스템 도입 등 고객 맞춤형 특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함께 C A 컨테이너 수송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동형 질소발생기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바이오의약품 전용 물류센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예비)을 받은 바 있다.

CXL BIO의 한명수 대표는 "CXL BIO는 GSC 센터를 중심으로 더 많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롯데웰푸드, '해남녹차 빼빼로' 한정판

해남군과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협약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해남녹차 빼빼로'를 선보였다. 지난 4월, 롯데웰푸드는 해남군과 '우리농산물 상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남녹차 빼빼로는 오는 7월까지 한정판으로 운영한다.

해남녹차 빼빼로는 녹차와 초코의 조화로운 달콤쌉사름한 맛이 특징이다. 과자 부분은 카카오 분말이 들어간 카

카오 비스킷이고, 씹사름한 녹차 스위트에 바삭하고 달콤한 초코쿠키칩이 토핑되어 있다.

특히 고소한 감칠맛과 목넘김이 부드러운 해남녹차를 원료로 사용해 풍미가 한층 뛰어나다.

패키지에도 상생의 의미를 높이는 디자인이 적용됐다. 해남군의 두류산 녹차밭이 연상되는 일러스트 이미지로 패키지 전면을 꾸몄다.

/신원선 기자

## 스타벅스, '자몽 허니 블랙티' 7000만잔 돌파

스타벅스코리아의 '자몽 허니 블랙티'가 출시 이후 8년간 누적 판매 7000만 잔을 돌파하며 스타벅스의 대표 스타벅스 음료로 자리 잡았다.

2016년 9월에 출시한 '자몽 허니 블랙티'는 자몽과 꿀이 어우러진 자몽 허니 소스와 깊은 그윽한 풍미의 블랙티가 만나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산뜻한 맛이 특징인 음료다. 스타벅스는 이 음료를 시작으로 티를 활용한 다양한 티 베리에이션 음료를 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한정 음료로 선보인 음료를 상시 판매로 재출시한 사례는 '자몽 허니 블랙티' 이외에도 다양하다. '브라운 슈가 오프 화이트 에스프레소',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 '바닐라 크림 롤드 브루', '스타벅스 돌체 라떼' 등 8종에 달한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 티'(왼쪽)가 누적 판매 7000만 잔을 돌파했다. /스타벅스

얼 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는 지난 겨울 '스노우 바닐라 티 라떼'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음료로 출시되었으며, 올해 1월 상시 판매로 전환되어 흥행블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애경 원씽, 日 시장 본격 공략... '케이콘 재팬 2023' 팝업

제품 체험 기회 제공·온라인 판매도

애경산업 자회사 '원씽(ONE THING)'이 한류문화의 랜드마크 행사인 '케이콘 재팬 2023(KCON JAPAN 2023)'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일본 현지 소비자들을 만났다.

원씽은 일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Qoo10)과 협업해 지난 12~14일에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개최된 케이콘 재팬 2023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케이콘은 태국, 일본, 미국에서 K-팝부터 푸드, 라이프스타일, 뷰티, 패션에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K-컬처 페스티벌이다.

원씽은 화이트톤의 깨끗한 콘셉트로

팝업스토어 공간을 꾸며 핵심 성분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브랜드 이미지를 일본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원씽은 팝업스토어와 함께 온라인에서 큐텐 단독 기획전을 운영하며 제품 판매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http://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효성,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억 후원

효성이 올해에도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효성은 16일 충남 육군본부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LS일렉트릭,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 창단

LS일렉트릭이 예술을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 인식개선을 돕는다. LS일렉트릭은 17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

DL이앤씨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저소득 가정을 찾아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은 DL이앤씨가 건설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외 계층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국거래소, 베트남 '암소은행 사업' 후원

한국거래소는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17일 베트남 광저성 조링현 여성연맹 강당에서 '2023년 KRX 베트남 암소은행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과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짠 티 롱(Tran Thi Long) 베트남 광저성 여성연맹 주석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헌혈 캠페인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대한적십자사(서울중앙혈액원)와 공동으로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현장의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기부액 300억 돌파

300억 기탁 감사패 전달 받아 월 정기 기부액만 9000만원

SK하이닉스가 10년간 300억원 행복을 나눴다. SK하이닉스는 16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행복나눔기금 300억원 기탁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후원금이다. 2011년 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97억원, 지난달 300억원을 돌파했다. 월 정기 기부액만 9000만원, 수시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천과 청주 지역 취약 계층 지원과 ICT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가지 사업에 쓰인다. 행복 GPS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하인슈타인', '행복 나눔 꿈의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우직히 소가 천리를 가듯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으로 13년 만에 300억 원을 달성해 매우 뜻깊다"며, "나눔을 통해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가운데 왼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가운데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감사패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SK하이닉스의 철학과, 성금보다 더 값진 꾸준한 행보에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감사패를 대표로 수령한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은 "회사는 행복나눔기금 외에도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어린 인재들이 반도체에 호기심을 가지며 성장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업장이 있는 이천 청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사업장 '푸르메소셜팜' 봉사를 비롯해 도서관 부족 지역에 책을 대여하고 배송해주는 '하이브러리'도 시작했다. 오는 26일에는 이천아트홀에서 콘서트 '히어로'를 열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 나눔 행사 '행복나눔 한마당'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부서별로도 다양한 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청주사업장에서는 봉사동아리 '다솜바리'가 활동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엠브레인' 아동 심리상담 활용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6개 아동보호기관 엠브레인 전달 뇌파 통해 심리상태 실시간 측정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엠브레인'을 아동 심리 상담에 활용된다.

현대모비스는 뇌파를 활용한 운전자 부주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엠브레인의 디자인과 착용감을 개선해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선보인 엠브레인은 별, 나뭇잎 등 자연물을 형상화해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어린이가 신규 디자인 엠브레인을 착용하고 상담사와 함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한 것이 특징이다. 엠브레인의 새 디자인은 디자인 창작물을 통해 아트 상품을 선보이는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인 키무스튜디오와 협업해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아동 상담시 엠브레인을 활용하면 뇌파를 통해 드러

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상담사와 아이가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엠브레인은 뇌파 신호 분석을 통해 버스, 물류 운송 등 상용차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부주의 상황에 경고 신호를 줘 사고를 저감하는 기술로 개발됐다.

현대모비스가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공공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엠브레인을 착용한 운전자는 졸음 운전 등 부주의율이 최대 3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ysw@

르노코리아, 협력업체 컨퍼런스 개최

친환경 신차 등 미래전략 공유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미래 친환경 신차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협력업체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르노코리아는 16일 용인시 르노 테크놀로지코리아에 200여의 협력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3 협력업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부품협력사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주요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회사의 친환경 미래 신차 개발 계획과 자동차 테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위

한 부품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올해의 협력사' 시상에서는 신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5개의 우수협력사가 이름을 올렸다. 부품 부문 성과상은 '애디언트 동성'과 '희성축매'가, 품질상은 '유진 SMRC 오토모티브 테크노'가, 연구개발상은 '쥬에이엠에스'가 받았다. 상생협력상은 '오스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성운 기자 ysw@

하림,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 오픈

티라노사우루스 등 16종 공룡 전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특별전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을 오픈했다.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와 하늘을 나는 익룡까지 총 16종의 공룡 조형물을 만나고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감나는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이다.

하림은 공룡 캐릭터 '용가리'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공룡을 주제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 특별전 /하림

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하 '희망스튜디오')는 아동청소년 창의학습·창작활동 '멘토링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자들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 온·오프라인 교류가 가능한 아이디어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더클래스 효성 사고 수리지원 프로모션

더클래스 효성은 6월 30일까지 '사고 수리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고 수리를 받은 차주에 금액 대별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마스터 패키지'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교환일로부터 2년간 일반수리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juk@

인사

◆법무부 (대검검거급 전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신봉수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재익

부음

▲강해동씨 별세, 강영모(대신자산신탁 재무자금부장)·근영(군산초 교사)씨 부친상 = 17일, 동국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63-441-4444

▲이전례씨 별세, 김경철·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경록·김미화씨 모친상, 이상권씨 장모상 = 17일, 광주 서구 풍서좌로237 VIP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 “고용·수출 지표 5% 높일 것”... 中企 경제활력 회복 나서

##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중소기업, 물품 구입·기부하며 출장식 중기중앙회 등 中企 유관단체 동참

중소기업계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에 적극 나서면서다.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사고 기부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별빛남문시장에서 김기문 회장을 포함한 캠페인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캠페인의 출발을 알렸다.

캠페인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10개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내수·고용·수출을 위해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시작했다. (왼쪽 4번째부터)이영 중기부 장관, 금천장애인복지관 박은정 관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금천구 별빛남문시장에서 물품 구매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가 두루 동참했다.

캠페인은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뿐만 아니라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가

지 이상의 지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대기업 동참 유도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수진작 분야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구매목표 500억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5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온

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구매 한 상품권은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한다.

고용활력 분야에선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

정이다.

수출증대 분야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이다. 또 미국·중동 등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상담회, 신산업·신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일본 중소기업과의 경제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더 어려운 약자를 돕겠다는 상생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소기업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이 경제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확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온 국민 동행 축제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수출기업, 내년까지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없어

## 중소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수출액 273억달러... 전년비 7.9%↓ 금리우대·보증 지원 자금 한도 확대 내수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수출기업들은 내년까지 정책자금 지원횟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일괄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의 3분의 2는 내수기업에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정부서

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대책에 이어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

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유예(30만 달러 이상)한다. 정책자금 용자제한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다. 금리우대(이자보전 3%p 인하)도 일괄 적용한다. 수출보증 지원시에도 소요 자금 한도를 110%까지 확대 적용한다.

일정규모 이상 수출기업(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지

원을 연계 받는다. 간접수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123억원·250개사)의 3분의 2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인천공항에 짓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도 2025년도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중동 등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과 현지진출 역시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업을 올해 하반기 중 리야드에 글로벌

별비즈니스센터를 새로 연다.

수출 현장도 면밀히 챙긴다.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추가 공급이 추진되고 초격차 분야에 55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해외인증 전담대응반 기능이 확대되고 지원절차 간소화 등 인증 부담은 완화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수출 활성화 TF(테스크포스)’도 가동한다.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약 40%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2027년까지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네이버클라우드 AI, 삼성전자와 만나다

“반도체칩 통해 전 세계로 공급 기대”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 오픈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삼성전자와 AI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AI모델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칩을 통해 전 세계로 공급한다면 매우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원 대표는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이 17일 오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 ‘제53회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한국형 초거대 AI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다’란 주제의 강연에서 “AI는 과거의 소프트웨어(SW)와 달리 비용이 너무 비싸다. GPU도 비싸다. AI 성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

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AI반도체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추천에 이어 올해 하반기엔 세종시에 축구장 41배 크기의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오픈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이 로봇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초대규모 A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한국어보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AI)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정된 토큰 사전의 크기로 메인 언어(영어)가 아니면 품질도, 속도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로 세상을 바꾸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 마이크로소프트(MS) 솔루션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강의를 하고 있다. /도전과나눔

업무 이진복 상무는 “생성형AI의 핵심은 ‘시간’”이라면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지나 생성형AI로 넘어오면서(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나머지 9시간 50분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초거대 AI 기반의 모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남은)‘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BC카드와 동행축제서 할인 이벤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BC카드와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6일 비씨카드와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소진공과 비씨카드는 그동안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5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상호협력·연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동행축제(5·9·12월) 관련 흥

보 협력 ▲소비자 이벤트를 통한 고객 관심도·혜택 확대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행축제 기간에는 에코백 협조 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마이태그를 활용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BC카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최대 10% 할인(최대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백년가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 분석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유엔 총장 “G7서밋,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불가 확인해야” /사진 뉴시스  
▲ 애플 근무 中엔지니어, 자율주행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

▲ 일본, 1분기 경제성장률 0.4% 증가... 3분기만에 플러스 전환  
▲ 경제위기 레바논, 이라크 석유수입 50% 늘려 발전수요 충족



▲ 미얀마·방글라데시, 초강력 사이클론 모카 상륙 큰 피해 /사진 뉴시스  
▲ 中 군함 2척 서태평양서 미사일 발사 실탄훈련



제로음료 시장 이색 마케팅



Life

범죄예방·아동보호 '방법초소' 편의점 L2



# '고교교육 연계' 91개大 575억 지원... 서울대 등 16곳 감액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연차평가 16개大, 입시 부담 완화 노력 미흡 서울대·고려대 등 사업비 20% 삭감

수학능력시험(수능) 특정 과목 응시 조건을 풀지 않는 등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부족했던 대학들이 국고 사업 평가에서 감점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등 16곳의 국고 사업비가 삭감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대학 총 16곳에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사업비 20%를 삭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최상위 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 17곳에 나눠 지급된다. '미흡' 대학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개선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유형 I)

<b>우수</b> (총 14개교)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대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숙명여대, 인하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남대, 한동대
<b>보통</b> (총 50개교)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인교대, 경희대, 계명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교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선문대, 세종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교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림대, 한밭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b>미흡</b> (총 13개교)	건국대(글로벌), 경상국립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가나다순

자료/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대입 전형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에 입학 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형 I·II 각각 13곳·3곳 '미흡'** 올해 '유형 I'에서는 ▲건국대(글로벌) ▲경상국립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13곳이 '미흡'을 받았다. '유형 I' 대학의 1곳당 연간 평균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다. 연 평균 3억원을 받던 '유형 II' 참여 대학 중에는 ▲동명대 ▲중원대 ▲홍익대 3곳이 '미흡'에 해당한다. 유형 II에는 최근 3년 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미흡' 대학은 사업비가 20% 감액 조정된다. 연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 I 은 1억5000만원, 유형 II는 6000만원 가량을 잃는 셈이다. 또한, 사업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추가 상담(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 16곳 중에서는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등 4곳이 국고를 감액받는다. 주요 대학 16곳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집정원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수능 응시 자격 조건을 풀지 않기로 하며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2024학년도에는 조건을 유지했고, 2025학년도부터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중 하나만 필수 응시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단,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숙대·인하대 등 '우수' 대학에**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총 575억원(사업관리비 제외), 지원 대학 수는 총 91개교다. 연차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는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대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숙명여대 ▲인하대 ▲제주대 ▲신라대 등 17곳이 선정됐다. '보통'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여대 ▲선문대 ▲인천대 등 58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연차평가에선 지난해 선정된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점검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에서 '202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성동구 삼표부지, '글로벌 업무지구'로 재탄생

세계적 건축가 초청, 국제설계 공모

서울시는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를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4명을 초청해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초청 건축가는 ▲데이비드 치퍼필드(영국, 아모레퍼시픽 사옥 설계) ▲위르겐 마이어(독일, 지퍼-RKM 740 설계) ▲KPF(미국, 10&30 허드슨 야드 설계) ▲SOM(미국, 부르즈 칼리파 설계)이다.

삼표 부지와 일대 사업 대상지



시는 본 공모에서 삼표부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제안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여를 활용한 서울숲·수변·성수 일대 주변지와의 연계 및 시설 특화 방안 아이디어도 제시토록 했다. 사업 주체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고, 내달 초 이들을 대상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현진 기자 hjk1@

# 한국외대, 데이터 청년캠퍼스 3년 연속 선정

빅데이터 실무 중심 교육 수행 맞춤형 데이터 고급인력 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2023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 기업이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올해 한국외대를 포함, 고려대, 서울과기대 등 12개 운영기관이 선정돼 산업 현장 맞춤형 데이터 고급인력을 융합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구분해 양성한다. 한국외대는 '2022년 데이터 청년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최우수상(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상) 2관왕을 거두며,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기초프로젝트와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심화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현진 기자

# 현 고2, 상위권 대학 교과전형에 수능 '필수'

2025학년도 대입 교과전형 변화 수능최저 없는 상위권大 이화여대뿐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는 가운데, 현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에는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전형에서 수능 성적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학생

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기로 변경하면서 내신성적 상위권 학생이 수능최저 없이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은 이화여대만 남게 된다. 2024학년도에는 서울 주요대학 중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에서 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다. 연세대의 경우,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의 전형 방법을 변경해 면접을 폐지하고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일반 모집단위의 최저기준은 영어 3등

급 이내에, 인문계열은 국, 수, 탐(1)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은 국, 수(미/기), 과탐(1) 중 수학 포함 2개 등급 합 5 이내이다.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매우 큰 변화를 줬다. 명칭을 학생부교과(지역균형발전)에서 학생부교과(추천형)으로 변경하고, 전형방법 또한 '교과100'에서 '교과90+교과정성평가10'로 반영한다. 특히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새롭게 적용하면서 지원 장벽을 높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1 | 해질 / 19:37

5월 18일 (木)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17~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6/24  
동두천 17/25  
가평 16/24  
파주 15/24  
서울 17/25  
양평 17/24  
인천 16/23  
수원 18/24  
용인 18/24  
평택 16/24  
백령도 12/18

·자료제공 : Kwo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최강희 감독, '손준호 구름' 中 산동 지휘봉  
▲손흥민과 김주형 만났다...토티넘 유니폼 들고 '찰칵' /사진 뉴시스

▲'첫 올림픽 본선 도전' 여자축구...18일 예선 조 추첨  
▲NBA 필라델피아, PO 2회전서 탈락한 리버스 감독 경질



▲KPGA 유일의 매치플레이 오늘 개막...홍정민 2연패 도전  
▲AC밀란 또 제압한 인터 밀란...13년 만에 UCL 우승 도전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SAMSUNG

## 전기요금걱정 無

소비전력 최대 90% 절약하는 무풍절전

알아서 에너지 절감해주는 AI 절약모드

놀라운 고효율로 부담 없는 에너지 세이빙 모델

에어컨에 대한 모든 해답

### BESPOKE 무풍에어컨

무풍당당 에너지 페스타 기간: 2023. 04. 01 ~ 2023. 05. 31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만나보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응원합니다

자세한제품정보는  
삼성닷컴에서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ilent Air)으로 정의 \* 무풍 냉방시 소비전력 최대 90% 소비전력 절약은 자사 실험 결과, 실험실 수치로 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KS 규격 표준 시험 조건 시험 모델: 당사 AF250934AAR) \* AI 절약모드 사용시 소비전력 절약률은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AI 절약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에너지 세이빙 에어컨 모델의 냉방효율은 7, 월간 소비전력량은 1841 kWh/월로 냉방효율이 20%이고, 월간 소비전력량이 205kWh/월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최자 기준 대비 소비전력량이 10% 더 낮음 (KS C9306에서 제시한 에어컨 효율 측정 방법 및 계산에 의거해 측정) \* 에너지 세이빙 에어컨은 AF17/CX936AFR 모델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제품 정보 페이지 참고

### 가전을 나답게.